

2024

4.15

CERIK 시장동향

2024년 4월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

- ◎ 매매시장
- ◎ 임대차시장
- ◎ 공급
- ◎ 수요
- ◎ 금융
- ◎ 부동산산업
- ◎ 통계요약표



CERIK

Construction &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

한국건설산업연구원

당월 부동산시장 현황 요약 및 추이 분석

-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4개월째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준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중(2월 0.04% 하락)
- 월세 거래 비중이 전·월세 거래 신고제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월세통합가격도 상승세
- 2월까지 공급 관련 선행지표는 지난해 누적치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, 수치의 개선은 수도권에 한정돼

- ◎ **(종합)** 매매, 거래, 공급 등 주택 시장 전반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 커지는 양상이 나타남.
- ◎ **(매매)** 2월 수도권과 지방 5대광역시 아파트 가격 각각 0.04%와 0.07% 하락한 반면 8개도(세종포함)는 0.00%의 보합세 나타내
 -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과 경기의 가격 하락이 지속된 반면 인천은 2개월('23.12.~'24.1.)간의 짧은 하락을 마치고 0.02% 상승
 - 지방 아파트 매매가, 1월 하락폭이 0.03%까지 줄어들며 2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가 주목됐지만 반대로 낙폭이 더 커진 -0.05%로 집계
- ◎ **(거래)** 주택 매매거래량은 수도권에서 1.9만호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며 지방은 8개도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며 지난달에 비해 4.05% 감소
 -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가격이 오르는 곳에서는 거래량이 감소, 상대적 선호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패턴으로 판단돼
 - 8개도 전역에서 거래량 감소하는 가운데 전남지역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 20.2% 증가했는데, 법인이 개인에게 매매한 거래량 증가폭 커
 - 생애최초 매입 비율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더 높은 추세가 2개월 연속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적 영향(신생아 특례대출)으로 판단
- ◎ **(임대차)** 전세 가격 움직임은 지역별로 상이(수도권 ↑, 지방 ↓)하며, 월세는 전국적으로 상승
 -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지방에 비해 수도권에서 가격 상승 폭이 더 큰데, 임대차 수요의 집중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
- ◎ **(공급)** 2월까지 누적 주택 인·허가 물량은 수도권에서 2.0% 증가한 반면 지방광역시와 8개도의 감소폭이 커 전국 10.4% 감소
 - 미분양은 2023년 11월까지 다소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후 지속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
 -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은 과거에 비해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증가폭이 큰 편(2월 4.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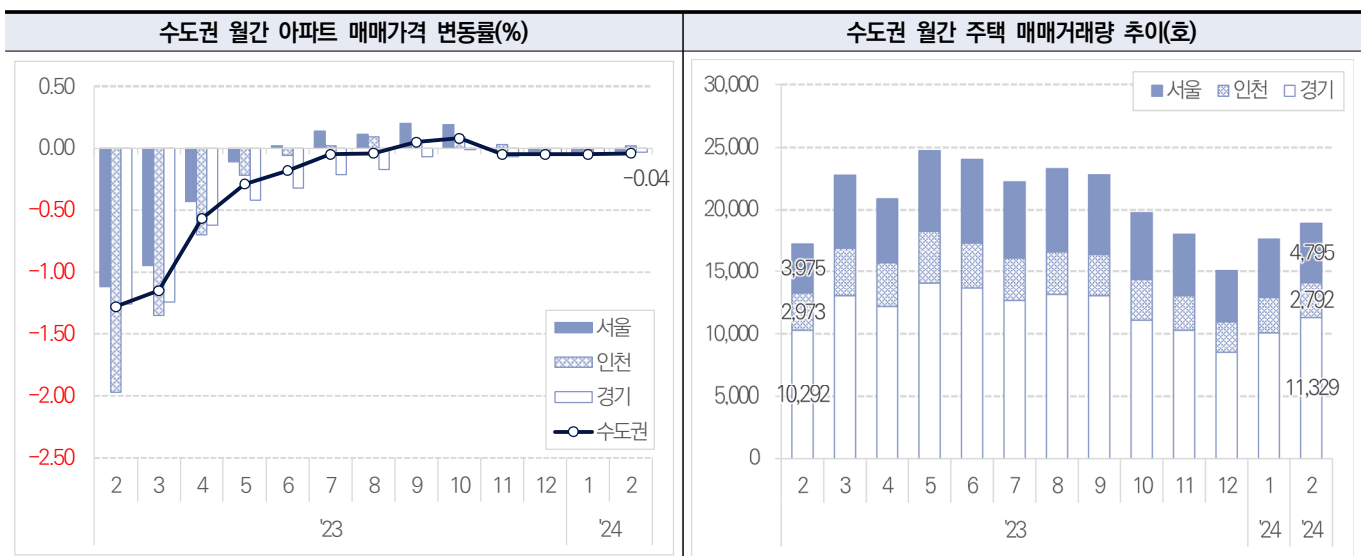
매매시장

1_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

- 2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.04% 하락해 4개월째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준의 하락세 이어가
-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.9만호 수준으로, YoY 9.7%, MoM 7.4% 증가

- ◎ (가격) 2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0.04% 하락해 2023년 11월 이후 0.04%~0.05%대 하락 지속
 - 서울(0.05% 하락)과 경기(0.03% 하락)지역에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은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(2개월간) 짧은 하락을 마치고 재차 상승(0.02%)
 - 경기 지역은 2022년 2월 이후 2년 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 하락 폭은 10.6%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
 - 다만 3개월(2023년 11월~2024년 1월) 동안 0.05% 하락하며 비교적 일정한 하락 폭을 보였던 반면 2월 들어 0.04% 하락해 0.01%p의 낙폭 개선 보여
- ◎ (거래) 2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 8,916호로 집계됐는데 지역별로는 가격 흐름과 달리 서울 경기의 전월 대비 거래량 증가, 인천의 전월 대비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
 - 2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의 증가는 경기 지역에서 주도(11,329건, YoY 10.1%, MoM 12.3%)
 -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 인천의 거래량은 YoY 6.1%, MoM 1.0% 하락해 가격 흐름과 상이. 상대적으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

수도권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



주 :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.

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부동산11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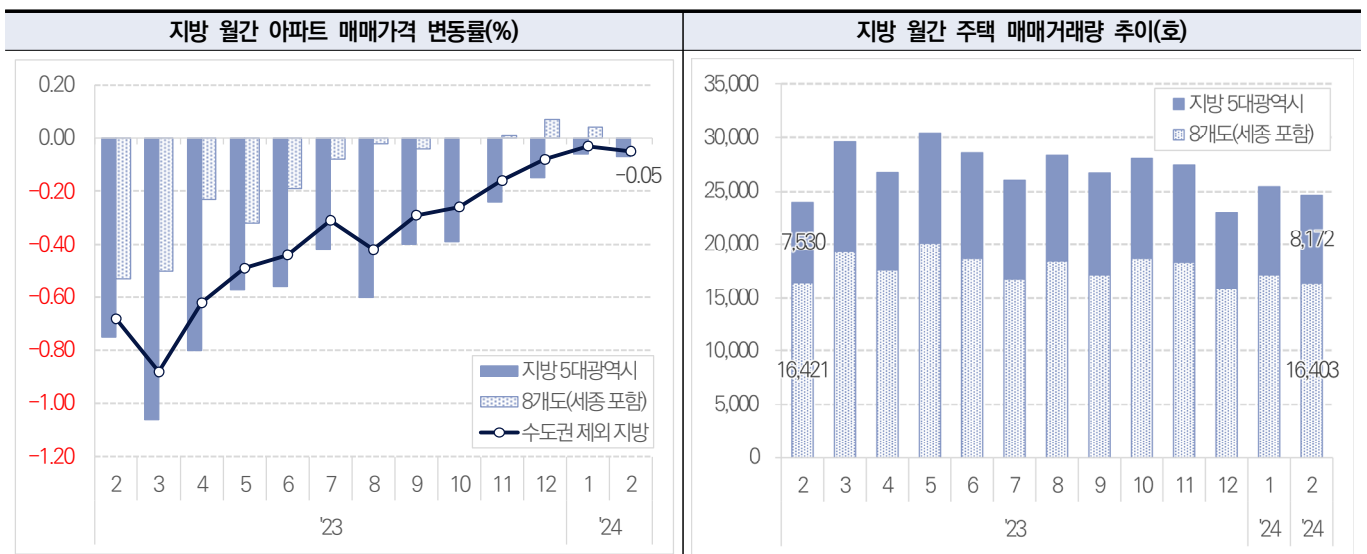
매매시장

2_지방(지방광역시·8개 도)

- 2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0.05% 하락해 23개월째 하락세 이어져... 다만 2023년 대비 낙폭은 적은 편
-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에 비해 3.34%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2.61% 증가

- ◎ (가격) 2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, 5대광역시 0.07% 하락한 데 반해 8개도(세종포함) 0.00%대 보합세 기록
 - 2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0.05%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 전월(0.03%)에 비해 하락폭이 소폭 증가
 - 지방에 위치한 5대광역시 아파트는 25개월(2022년 2월~2024년 2월)째 하락세를 기록하는 중이며 그 동안 누적 하락폭은 10.14%로 집계
 - 세종을 포함한 8개도 지역의 가격은 2023년 10월 보합세를 기록한 데 이어 5개월째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유의한 약한 상승세를 보여 5대광역시와 차이를 보여
- ◎ (거래) 2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증가(MoM 8.53%)했지만 8개도의 거래량 감소 폭이 두드러지며 지난달에 비해 4.05% 감소
 - 지방 5대광역시 YoY 거래량 대체로 증가하는 가운데 MoM 거래량 증감은 지역에 상이한 움직임 보여
 - * 부산 -2.6% / 대구 1.4% / 광주 8.0% / 대전 -7.2% / 울산 -10.6%
 - 8개도 전역이 최소 4.7%~최대 9.7% 감소하는 가운데 전남지역만 전월에 비해 20.2% 증가, 법인이 개인에게 매매한 거래량의 증가폭 커('24.1. 71건 → '24.3. 467건)

지방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



주 : 매매가격 변동률의 경우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.
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부동산114.

매매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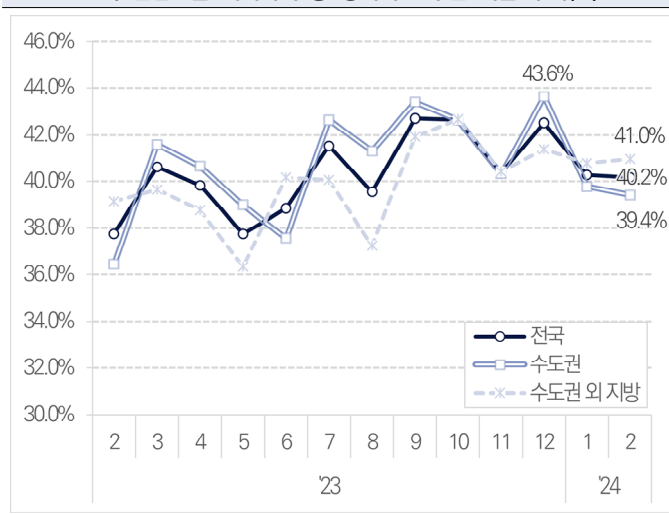
3_거래속성

- 2월 전국 집합건물 매매거래 중 생애최초 구입 비율은 40.2%로 2023년 말 대비 하락
- 2월 전국 주택 거래 중 외지인 비율, 23.7%로 집계돼 장기 월평균('06.1.~) 19.9%를 다소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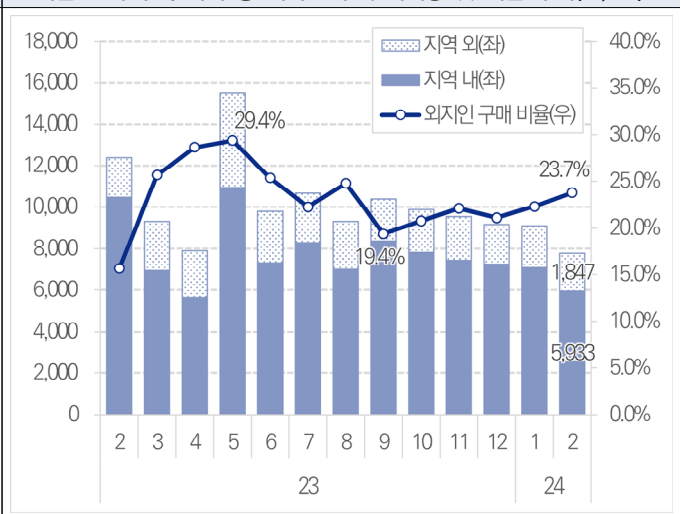
- **(생애최초 매입)** 2월 전국 집합건물 매매거래 중 생애최초 구입 비율은 수도권 39.4%, 지방 41.0%로 집계
 -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이 비교적 적은 관계로 생애최초 구입 비율 증가폭 적어
 - 지역별 출산율 차이로 인해 비교적 정책 수혜 대상이 적은 수도권과 반대로 수혜 대상이 많은 지방의 생애최초 구입 비율이 역전된 가운데, 향후 수도권 지역의 생애최초 구입 비율 추이를 확인해보아야 함.
- **(외지인 거래 비율)** 2월 서울 주택 거래 중 외지인 거래 비율은 23.7%로 집계돼 지난해 9월 직전 저점(19.4%)을 기록한 이후 증가하는 추세
 - 2월 한 달 동안 외지인이 구입한 주택은 5,933채로 집계됐으며 2022년 하반기~2024년 현재까지의 외지인 거래량은 2006년 1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준('06.1.~'22.6. 월평균 1만 3958호)
 - 서울의 외지인 거래 비율이 직전 고점을 기록했던 시기는 2023년 5월로서 당시 외지인 비율은 29.4%를 기록한 바 있으며, 2월 현재 외지인 비율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월평균 비율인 19.9%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

주택매매시장 거래 속성

전국 집합건물 매매거래 중 생애최초 구입 비율 추이(%)



서울 전체 주택 거래 중 외지인 구매 거래량 및 비율 추이(호, %)



주 : 1) '20년 4월 전국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7.8%(동 기준; 경기도, 2020), 집합건물의 요체를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분석함.

2) 등기 통계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속성을 지녀 전월 집계와 상이할 수 있음.

3 외지인 구매 중 '지역 내'란 매수인의 주소가 해당 시도 내인 경우를 말하며 '지역 외'란 시도 외의 경우를 말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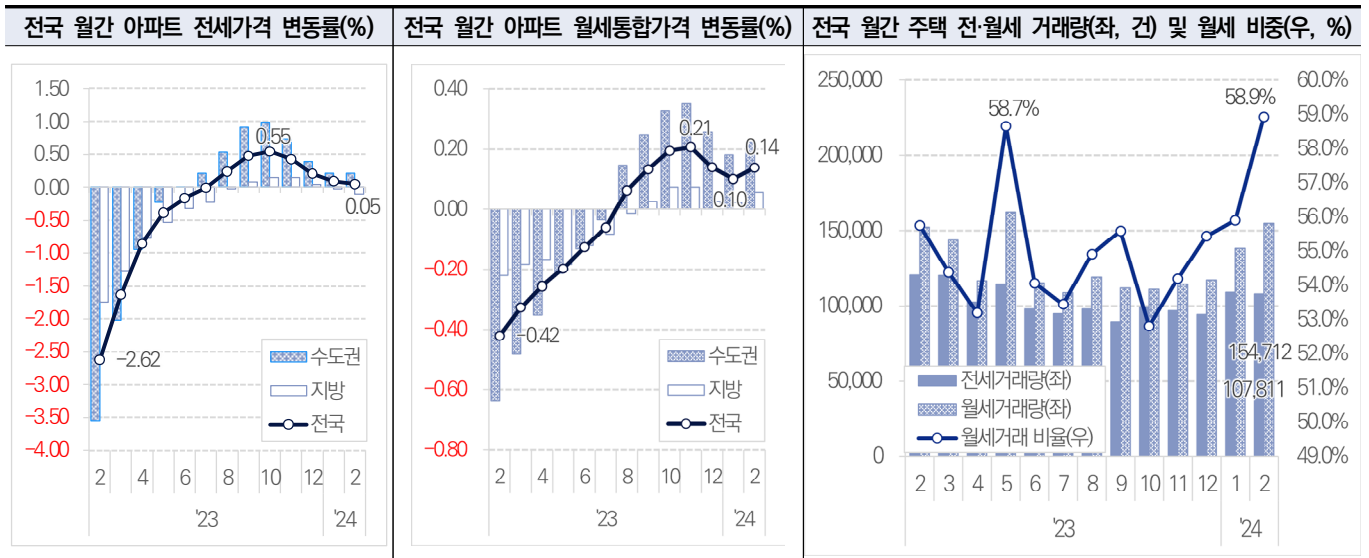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법원 등기정보광장.

임대차시장

- 2월 아파트 전세가는 상승세 둔화(24.2. 0.05%)하였으며 월세는 다시금 상승세 키워(24.1. 0.10%→'24.2. 0.14%)
-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58.9%로 2023년 5월의 58.7%에 비해 더 증가

- **(전세)** 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0.22% 올라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의 상승세가 지속된 반면, 지방에서 지난달에 비해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월 대비 상승세 둔화
- **(월세)** 전국 아파트 월세통합가격¹⁾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상승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MoM 상승폭이 0.22%로 지방의 0.06%에 비해 큰 편
- **(거래량)**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 58.9%로 집계돼 전·월세 거래 신고제 시행 이후('21.6.~) 발표된 통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.²⁾
 - 전세거래량 2023년 6월 10만호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2024년 1월과 2월 모두 10만호 넘어
 - 전체 임대차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하반기~2022년 1사분기 40%대를 기록하였고 이후 50%를 초과해 주류 거래 유형으로 등극
 - 월세 거래량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2022년 5월이며 당시 비중은 59.5%에 달했으나 이때는 거래 신고 제도기간 일몰 예고로 인해 거래 신고가 집중돼 월세 거래 비중이 평소보다 높았을 것

전국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



자료 : 한국부동산원, 국토교통부.

- '월세통합가격(지수)'이란 월세, 준월세, 준전세 지수를 각각의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지수임. 이하 동일함.
- 거래 신고나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갭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. 따라서 신규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.

공급

1_인허가

- 1월~2월 누적 주택 인허가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지난해에 비해 2.0% 증가했지만 지방광역시와 8개도(세종포함)은 감소
- 2023년 발표된 9.26. 공급 관련 대책이 2023년 10월부터 적용됐으나 시장 상황에 의해 증가세 뚜렷하지 않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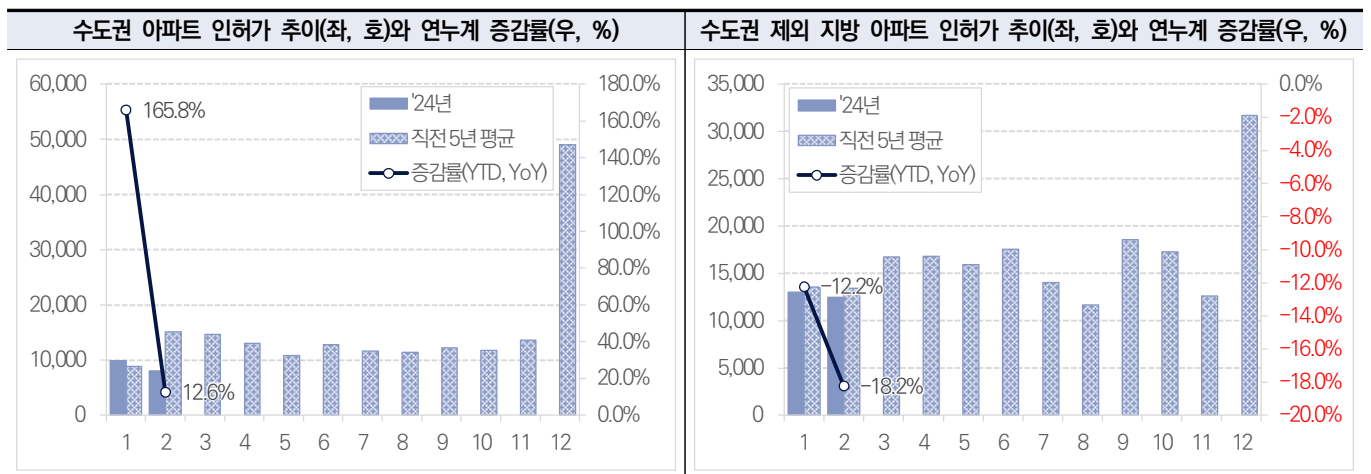
- ◎ (주택 전체) 지난해 인허가 물량과 올해 인허가 물량을 비교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전국적으로는 10.4% 감소
 - 공공부문 감소폭이 민간 대비 두드러지나, 공공은 2023년 연말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야
- ◎ (APT)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누계는 1월에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월 들어 전월 대비 34.3% 감소('23.2. 1만 2,165호 → '24.2. 7,989호)하면서 누계 증가폭이 감소
 - 지방도 전년 누계 대비 감소 폭이 18.2%로 증가('23.2. 3만 1,184호 → '24.2. 2만 5,494호)

주택 인허가 현황(YTD)

인허가 현황 (호, %)	지역별 합계				공공부문				민간부문			
	전국	수도권	지방 광역시	8개도	전국	수도권	지방 광역시	8개도	전국	수도권	지방 광역시	8개도
2023년 1~2월	54,375	19,497	13,409	21,469	1,403	716	687	0	52,972	18,781	12,722	21,469
2024년 1~2월	48,722	19,883	9,928	18,911	514	307	0	207	48,208	19,576	9,928	18,704
전년 동기 연누적 대비	-10.4%	2.0%	-26.0%	-11.9%	-63.4%	-57.1%	순감	순증	-9.0%	4.2%	-22.0%	-12.9%

자료 : 국토교통부.

아파트 인허가 추이



자료 : 국토교통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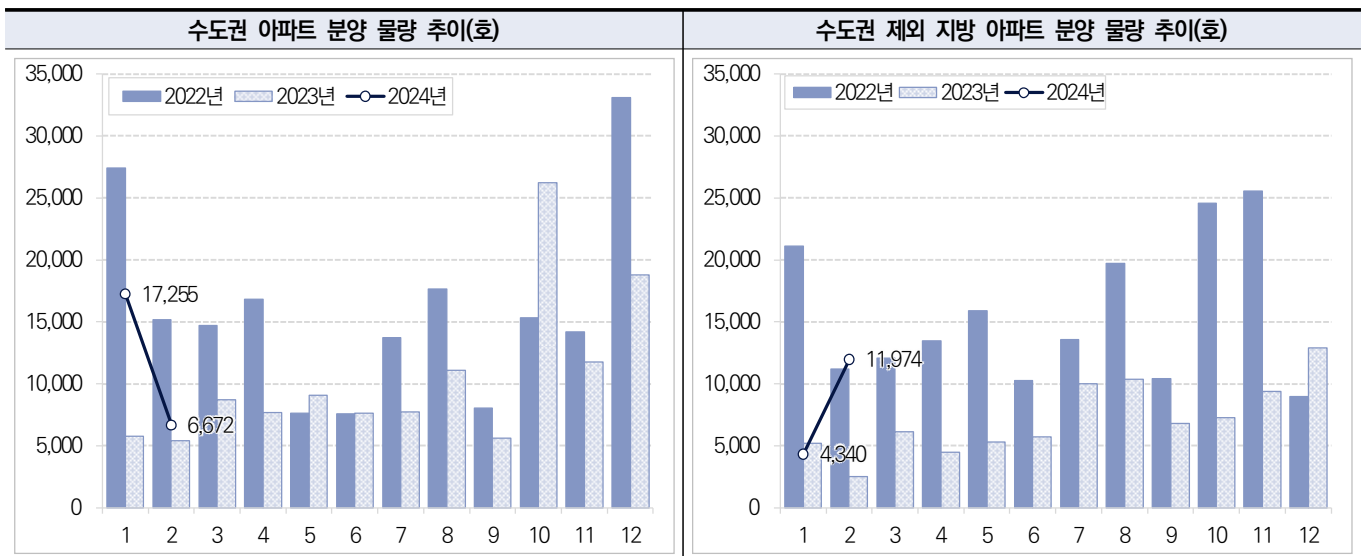
공급

2_분양

- 2월 전국 분양은 1.9만호로 집계돼 YoY 133.5% 증가했으나 이는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, 지난해 2월 전국 분양 물량(7,985호)이 48개월래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
- 지역별로는 지방 분양이 다소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의 감소폭이 커 전월 대비 13.7% 적은 1만 8,646호가 분양됨.

- ◎ **(수도권)** 2월에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6,672호로 집계돼 전월 대비 61.3% 감소
 -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1만호 이상을 기록했지만 2월 들어 다시 감소해 7천호에 미치지 못해
 - 지난해부터 우려됐던 분양가 인상이 차츰 현실화되면서 수요자의 선호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분양 수요가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
- ◎ **(지방)** 지방 분양은 수도권의 감소와 달리 YoY 369.6%, MoM 35.8% 증가
 - 지방 분양의 큰 폭 증가는 기저효과와 금월 분양 물량 집중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 해석 가능
 - 2023년 2월 지방 아파트 분양은 2,550호에 불과해 48개월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반면, 2024년 2월에는 1만 1,974호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월평균 분양 7,181호를 넘어
- ◎ **(분양계획)** 4월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물량은 약 1.3만 가구로 집계돼 3월에 비해서도 더 적은 수준으로 집계됨. 계획대로 분양이 진행된다면 2024년 중 가장 적은 분양물량이 될 것. 이는 4월 10일에 치러질 총선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업계에서 예의주시하며 분양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.

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



자료 : 부동산11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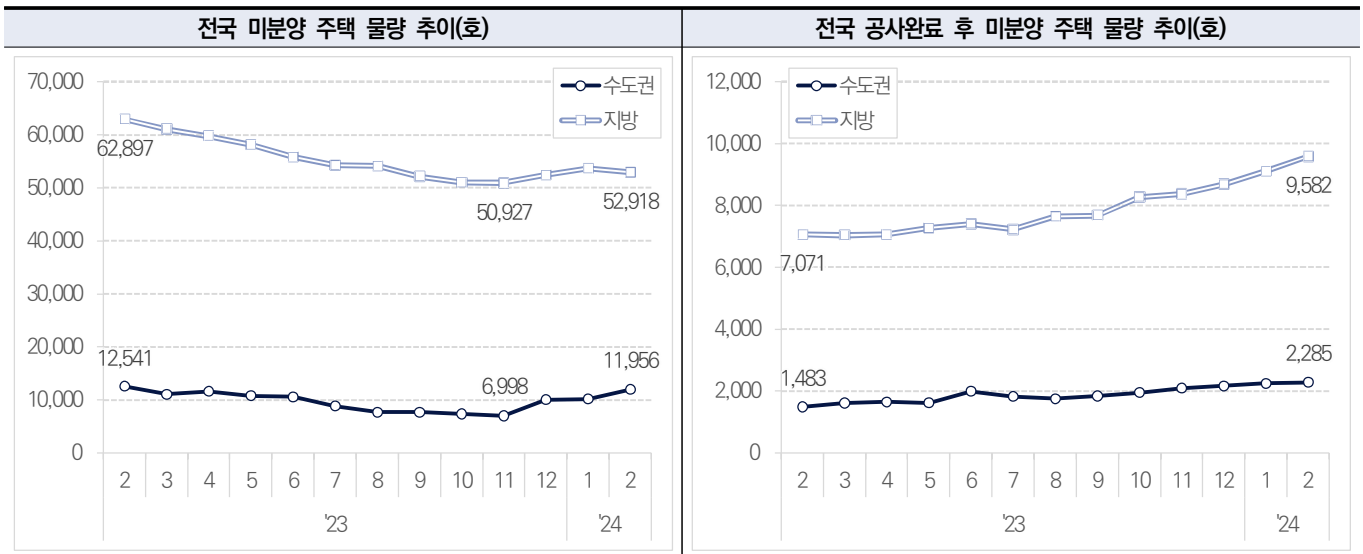
공급

3_미분양

- 2월 전국 미분양은 6만 4,874호로 집계돼 지난달에 비해 1,119호(1.7%) 증가
-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증가해 1만 1,867호로 2021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 기록

- ◎ **(미분양)** 2월 미분양은 지방에서 677호(1.3%) 감소한 데 반해 수도권에서 1,796호(17.7%) 증가
 - 2023년 11월까지 감소세가 뚜렷했던 수도권 미분양, 12월에 43.3% 증가해 1만호를 초과한 이후 지속 증가해 2024년 2월 현재 1만 1,956호 기록
- ◎ **(공사 완료 후 미분양)** 2월 전국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에서 37호, 지방에서 467호 증가해 전월 대비 4.4% 증가
 -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이란 사용승인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집계한 것으로서, 미분양이 최초로 인식된 이후 사용승인일까지 판매된 주택을 제외하고도 판매되지 않고 남은 주택을 의미
 - 2024년 1월 1.1만호를 초과한 전국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은 2월 들어 1만 1,867호로 504호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폭이며 2022년 6월 이후 월간 증가량 평균의 2배에 달해
 - 과거 추이를 살펴보면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2009년 당시 증가폭에 비하면 큰 폭의 월간 증가량이라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
 - 과거 미분양 증가가 시작된 시기가 2022년 초이며 최근 아파트 공사 기간이 3.5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공사 완료 후 미분양 물량은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

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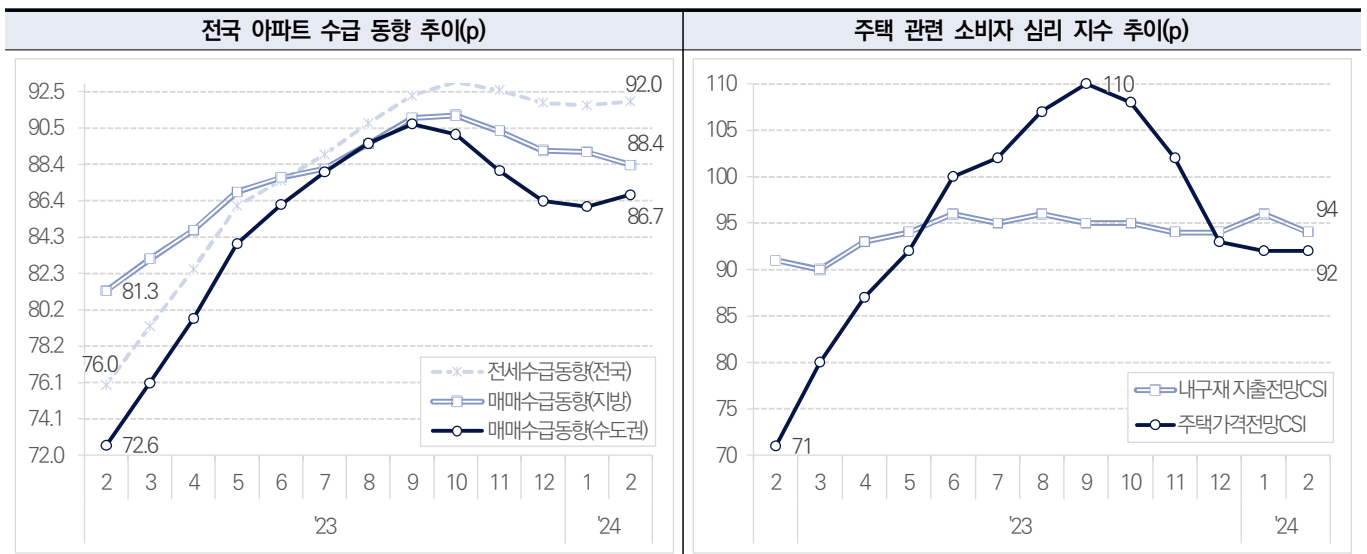
자료 : 국토교통부.

수요

- 2023년 9월~10월 이후 하락하던 수도권 매매수급동향 및 전국 전세수급동향, 상승세로 돌아서
- 주택가격전망지수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지만 2024년 들어 소강상태 보여

- ◎ **(수급동향)** 1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7.7p를 기록해 지방 매매수급지수 89.1p를 하회
 -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 저하로 전세수급지수가 매매수급지수보다 높은 가운데 2023년 7월~8월 수도권 매매와 전세수급동향지수가 근접했으나 이후 매매수급지수의 하락세가 커지면서 차이가 벌어져
 - 2월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급동향이 다소 개선된 것은 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하와 ②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, ③ 정책 모기지 유입 등 요인을 꼽을 수 있어
 - 그러나 각 요인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해보는다면 향후 수급 동향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
- ◎ **(소비자심리)** 11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 102p, 전고점인 9월 110p에 비해 8p 하락
 - 2023년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17p 하락(110p → 93p)한 주택가격전망 소비심리지수는 2개월 연속 1p 내외의 움직임을 보이며 안정세
 - 1월 들어 96p로 다소 상승하는 듯했던 내구재 지출전망 소비자 심리지수는 2월 들어 다시금 전년 말 수준인 94p로 회귀

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및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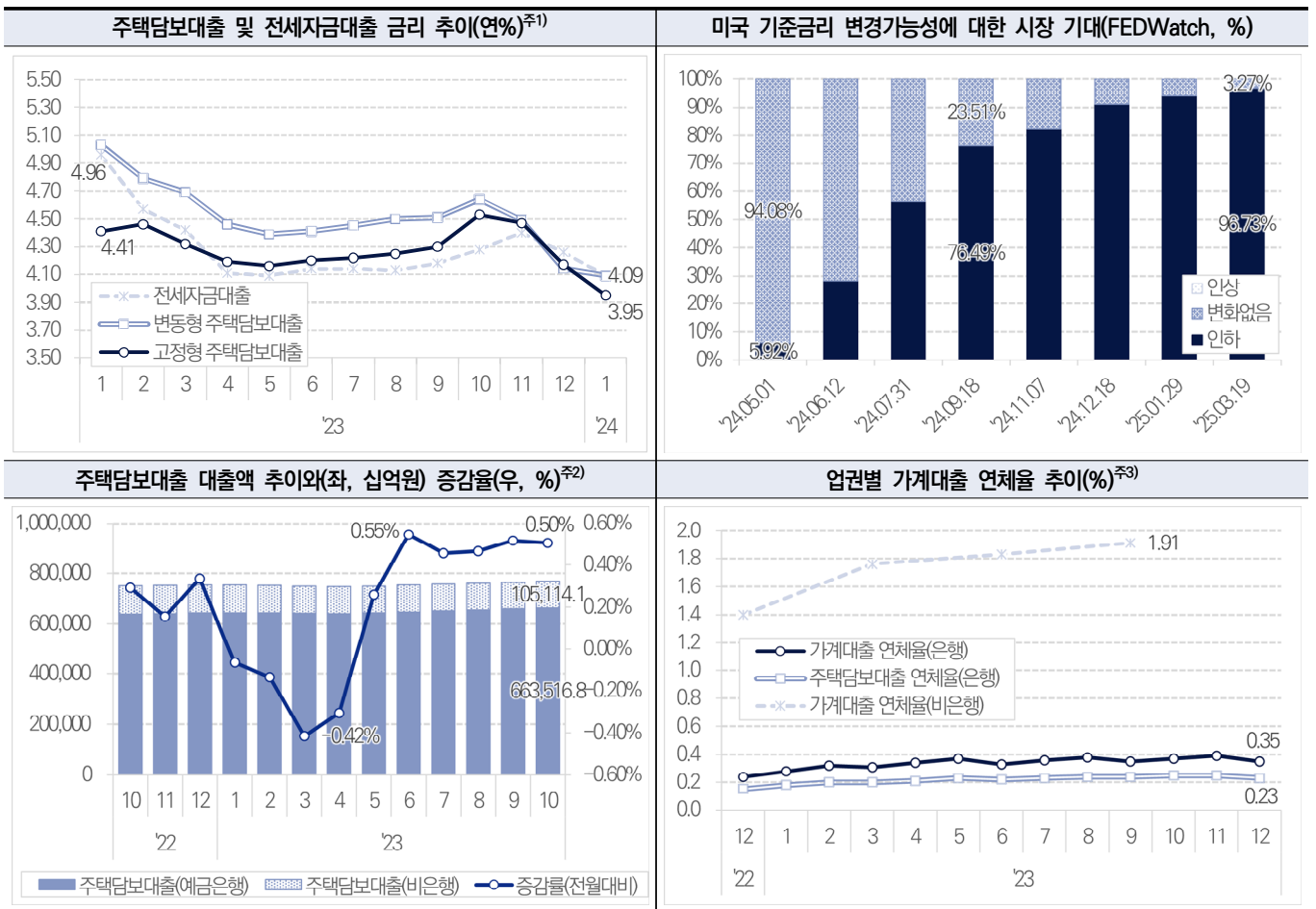


주 :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생산되는 수급동향 자료 중 매월 말 지수를 월간 대표 지수로 처리하여 분석함.
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한국은행.

금융

- ◎ (금리) 2024년 1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은 3.95%로 집계돼 지난 2022년 6월 4.00%를 기록하며 4%대로 접어든 이래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3%대를 기록
 - 2022년 6월 4.00%를 기록했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은 2022년 9월 4.72%까지 상승해 소비자들의 금리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
 -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정부의 정책 모기지론 판매가 중단된 9월 말 이후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었고, 이는 매매가 하락으로 연계
 - 금리가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4%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내려온 만큼 매매와 전세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졌는지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아야 할 것

주택 시장 관련 금융 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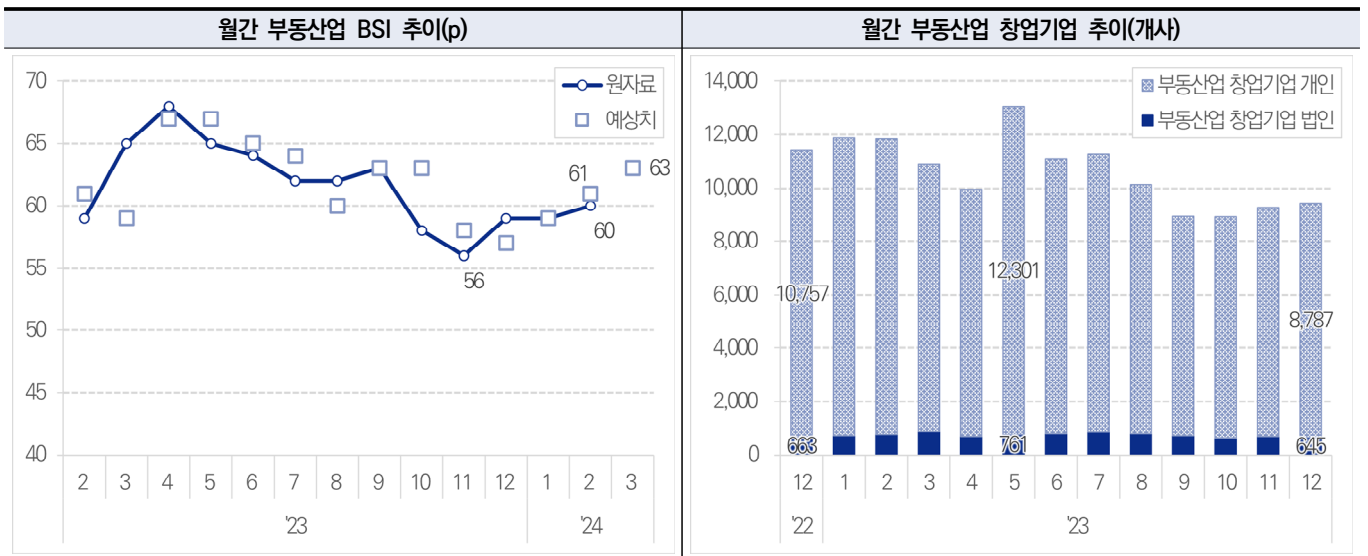
주 : 1)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,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HF 월간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중위값(짝수인 경우 중위수 두 값의 평균)임.
 2) 본 자료에서 비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, 신용협동기구, 우체국예금, 종합금융회사 등 은행이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함. 이하 같음.
 3)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는 분기별로 집계되며, 임의로 분기 말(3·6·9·12월)에 입력하였음.
 자료 : 한국은행, 한국주택금융공사, 금융감독원, Chicago Mercantile Exchange.

부동산산업³⁾

- ◎ (부동산업 BSI) 2월 부동산업의 업계 현황 기준 BSI는 60p로 조사돼 지난달 업계에서 예상했던 61p에 거의 근접
 - 2023년 9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잠시 상승세를 보였던 부동산업 경기실사지수는 이후 부동산 가격이 재하락하면서 빠르게 하락한 바 있음.
 - 이후 2023년 12월 업황은 예상치를 웃도는 성과를 보였고 1월~2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BSI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
 - 다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다소 강화되고 있어(소비자심리지수 분석 참조) BSI가 상승할 여지가 있지만, 부동산 PF 문제, 상업용 부동산의 어려움 등 여러 정황이 겹칠 수 있어 상승세를 낙관하기에는 이른 상황

- ◎ (부동산업 창업기업 수) 2023년 12월 부동산업 창업기업 수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9,432개로 집계돼 10월 최저치에 비하면 5.6% 증가하였지만 과거에 기록해왔던 월간 평균 창업기업 수에 비하면 적음.
 - 이로써 2023년 한 해 동안 창업한 부동산업 영위 기업은 12만 6,685개(개인 8,830개, 법인 11만 7,855개)로 집계
 - 2023년 부동산업 창업기업은 2022년 대비 38.4% 감소했고 2021년에 비하면 60.1% 감소

부동산업 경기지수 및 창업기업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, 중소벤처기업부.

3) 본 고에서는 '부동산산업'의 범위를 데이터 출처의 정의에 따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'L.부동산업(68)'로 정의함.

부동산시장 통계요약표

항 목	변화율 · 변화량					최신 집계치 ^{주)}	최근 5년 변화 추이		
	직전 5년		직전 3년		YoY			MoM	
	고점	고점대비	고점	고점대비	-			-	
거시경제	경기선행지수 (p)	113.7	0.0%	113.7	0.0%	4.0%	0.3%	113.7	
		95.0	19.7%	104.4	8.9%				
	소비자물가지수 (p)	113.9	0.0%	113.9	0.0%	3.1%	0.1%	113.9	
		99.2	14.9%	102.0	11.7%				
가격지수	수도권 아파트 매매 (p)	480.8	-9.2%	480.8	-9.2%	-2.3%	-0.0%	436.5	
		303.8	43.7%	424.8	2.8%				
	지방 아파트 매매 (p)	334.9	-8.2%	334.9	-8.2%	-3.7%	-0.0%	307.6	
		240.6	27.8%	306.4	0.4%				
거래량	수도권 주택 매매 (건)	75,725	-76.7%	49,358	-64.3%	71.0%	16.7%	17,608	
		10,299	71.0%	10,299	71.0%				
	지방 주택 매매 (건)	77,078	-67.0%	52,751	-8.2%	64.4%	10.8%	25,425	
		15,462	64.4%	15,462	64.4%				
공급	전국 아파트 분양 (호)	63,520	-71.5%	63,520	-71.5%	21.7%	-2.8%	18,116	
		7,985	126.9%	7,985	126.9%				
	전국 주택 미분양 (호)	75,438	-14.0%	75,438	-14.0%	-14.0%	1.8%	64,874	
		13,842	368.7%	13,842	368.7%				
금용	주택담보대출 금리 (%)	4.82	-0.83%p	4.82	-0.83%p	-0.59%p	-0.17%p	3.99	
		2.39	1.60%p	2.66	1.33%p				
	주택담보대출잔액 (십억 원)	782,854.4	0.0%	782,854.4	0.0%	3.8%	0.7%	782,854.4	
		606,385.0	29.1%	691,012.6	13.3%				

주 : 1) 통계 발표 시점에 따라 당월 혹은 전월 집계치를 활용함.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분석함.
 2) 가격지수는 자료의 추가 수집 등 지수 작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시 갱신될 수 있음.
 자료 : 국토교통부, 한국부동산원, 한국은행, 부동산114.

약어표(가나다 順)

용 어	내 용	비 고
BSI	기업경기실사지수(Business Survey Index)	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
CSI	소비자심리지수(Consumer Sentiment Index)	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
MoM	전월 대비 변화율(Month-on-Month)	
YoY	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(Year-on-Year)	
YTD	연초 대비 누적 변화율(Year-to-Date)	